

# ‘남북 365일 소통채널’ 내일 문 활짝

### 연락사무소 소장 임명 주 1회 정례회의 개최 남북회담 공간 활용도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확정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오는 14일 열린다.

남북 현안을 폭넓게 교섭할 상시연락채널이라는 역할을 고려해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을 차관급 인사로 두는 데 합의했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공동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 시 양측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 남북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실무급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

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당국 간 협의와 연락 업무 등을 지원한다.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논의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또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연락사무소 조직은 소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사무처장을 포함한 통일부 인력과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과건 인원이 함께 근무한다. 사무처는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3개 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같은 조직안은 남북 소장을 포함해 각각 15~20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인력 규모는 남북 간 협의에 증명될 수 있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현단계의 직제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상태다.

연락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긴급한 문제 처리를 위한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전력은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 현재 연락사무소와 서울 사이 통신망 5회선과 일반회선 25회선이 설치돼 있다.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통행과 편의는 남북 당국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소가 추진돼왔다.

이후 지난 6월1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사전점검과 준비를 거쳐 지난 7월2일부터 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공사가 시작됐

다. 7월 중순부터는 건설인력이 개성에 체류하며 공기를 앞당기는 한편, 남북 당국은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방향 합의안을 마련해 박차를 가했다.

연락사무소 청사와 숙소는 개성공단 내 기존 교류협력협약사무소를 개보수해 사용한다. 청사 건물은 연면적 4498㎡ 규모로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사무소가 있고 3층에는 회담장이 위치한다. 숙소는 직원과 회담대표에게 제공되며 VIP실 4개를 포함해 44개의 객실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오는 14일 개소식을 마친 직후 운영을 시작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양측 수석대표는 개소식에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다. 합의서 문안은 지난달 23일 실무급 조율을 마쳤으며 연락사무소 기능, 구성, 운영관리, 활동, 편의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명식 후 남북 대표는 연락사무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뉴시스



발달장애인 공연단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 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청렴 공직사회 구축 첫 걸음”

### 김광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국회토론회 개최



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시행되는 성과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02년부터 2016년 말까지 2,457명에 이르고, 여전히 공직에서 배제된 136명의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앞장서왔던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주거복지센터 도입 위한 공감토론회

### 도의회 문건위 정호윤 위원장 시범사업 지원 등 계획 밝혀



발제를 맡은 전주시 김영찬 주무관은 “당장 시군 단위 주거복지센터 도입이 어렵다면, 도내 시군 2~3곳만이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차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토론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주거복지센터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 국회 국토위 ‘신창현 자료 유출 논란’ 맞붙

### 여야 의사 진행발언부터 고성...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 파행

여야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가 의사 진행발언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오전 정회가 선언됐고 당초 예정된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토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계류 중인 법안 149건에 대한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전 순서에 대해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오전 10시50

분개에서 회의가 시작됐고 야당 의원들이 신 의원 사내부터 따지자고 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국토위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의원이 비밀로 입수한 자료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온 나라가 실망 절망했다”고 비판하며 신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을 먼저 다루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셔라”라고 말을 끊으며 반박했다. 임종성 의원은 의사진행 발

언에서 “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 않나. 이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 뜻인데 지켜보시면 되지”라며 “이런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 자료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시 불응할수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의 합진규 의원은 “우리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참 궁금하다. 저는 처음 보도를 듣고 귀가 의심스러웠다”며 재반박하며 “그냥 검찰에 고발해서 지켜보지나 그럼 끝난겁니까. 예정된 택지지구를 전면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며 소리쳤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자료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신 의원이 자료를 최초로 받았다고 밝힌 김종현

과천시장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간사들도 맞붙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현안질의를 한 다음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당사자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오전에 법안 상정후 현안질의 하라고 했다. 순서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위원장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일주일 전 의사일정과 법안 상정하는 것으로 공지했다”면서도 “협의를 필요하다면 간사들은 다시 협의해달라. 잠시 정회하겠다”며 오전 11시20분께 회의를 중단했다.

여야 간사가 퇴장한 이후에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간사 합의했으면 존중해야지!”라고 소리치는 등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뉴시스

##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 부상자 322명... 하루 1명꼴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부상사고가 하루 1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가장 많았고 주로 학교와 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어린이 놀이시설 부상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총 322명이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자가 251명(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돌(33명·10.2%), 넘어짐(24명·7.5%) 등이 뒤따랐다.

놀이시설 설치장소별로는 학교(166명)와 주택단지(114명)에서의 부상자가 두드러졌다.

이재정 의원은 “하루에 한 명 꼴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맞춘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학교와 주택단지에서의 사고 형태와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